

1990년대 男性服飾에 關한 研究

모 현 선*(홍익대학교 미술학과)

금 기 숙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교수)

20세기 후반 들어 사회 전반적인 무드가 여성위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당당히 자리 잡아 가고, 과거의 연약하고 소극적인 페미니즘이 아닌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성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페미니즘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은 물론 남성들의 성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패션에 있어 여성적인 남성, 남성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앤드로지너스 경향과 성 구분이 모호한 중성화의 경향은 성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이 붕괴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남성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남성복에 나타나는 여성화 경향의 진행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남성복식의 사회·문화·복식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21세기 남성복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로써 남성복의 변화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1990년대 남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해외 콜렉션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고 남성복에 나타나는 여성화 경향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① 형태에 있어 여성적인 실루엣인 꼭 맞고 밀착되는 실루엣과 가늘고 유연한 실루엣이 나타났고, 착용 형태에서는 여성의 단품을 수용한 레이어드룩이 나타

났다. ②소재는 주로 여성복에서 사용되는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 광택과 신축성이 좋은 소재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표현하였고 ③색채는 무채색과 더불어 원색과 파스텔톤의 색채 ④문양은 여성의 전용물로 여겨져 왔던 꽃문양 ⑤장식에 있어서는 디테일과 트리밍, 장신구는 여성의 것을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밖에도 화장과 헤어스타일에서는 더욱 과감한 접근을 보여 남성복에 나타나는 여성화 경향의 진행속도를 가늠할 수 없었다.

2. 1990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조형의지는 크게 복고 경향, 캐주얼 경향, 여성화 경향으로 집약되었다. 1990년대 남성복식에 복고풍으로 등장한 시대적 배경은 50년대부터 70년대에 등장한 테디보이, 모즈, 히피, 핑크 스타일이다. 캐주얼 경향은 자신의 취향과 편안함을 중시해 레이어드 룩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붕괴와 남성패션의식의 변화 및 남성 본래의 잠재적 미의식을 표출하고자하는 복고의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

3. 1990년대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은 20세기말의 사회·문화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첫째는 성 역할의 변화, 둘째는 패션의식의 변화, 셋째는 성의 상품화에 따른 권위의 추락, 넷째는 세기말적 현상의 반영 등으로 요약되었다.